

3. 코스닥 證券 出帆後 場外市場

- (動向) 7월 1일 코스닥 증권이 출범한 이래 그동안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去來形成率과 株當 平均 賣買 單價가 높아지는 등 외적인 성장 가능성은 나타났으나 去來量 증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
- (展望) 制度 改善, 場外 株價指數 開發, 去來所 市場과의 역할 정립 등이 이루어지면 場外市場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
거래형성률과 주당 평균 매매가의 상승, 거래량 증가는 미흡

- (動向) 코스닥 증권 출범이후 去來形成率과 株當 平均 賣買 單價는 높아졌으나 去來量 증가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음
 - 증권업협회와 33개 증권회사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된 코스닥증권(株)은 장외거래를 전담하는 전문 중개 회사임
 - 8월 1일 현재 거래소 시장과 비교해 보면 장외시장의 등록 종목수는 38.6%이고 시가총액은 5.9%임
 - 거래형성 종목수는 코스닥 출범 이전 일 평균 30개 종목에서 코스닥 출범 이후 57개 종목으로 증가했으나 거래형성률은 거래소 시장과 비교하여 볼 때 아직 매우 낮은 상태임
 - 장외시장 종목의 주가 평균은 6월말 15,369원에서 8월 3일 현재 20,491원으로 33.3% 상승했음
 - 반면, 同 기간의 총거래량은 약 2,276만 주로 지난 상반기의 월 평균 2,762만 주보다도 적었음
 - 예를 들어 지난 7월 한달동안 주가가 110%이상 오른 30개 종목중 한달간의 거래량이 1,000주 이상인 종목은 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거래없이 호가로만 오르는 氣勢 上限價에 의해 상승하였음

<장외시장 동향>

	회사수(종목수)	거래량(누계,천주)	시가총액(백만원)	주가평균(원)
95년 말	340(454)	32,173	7,338,202	13,218
96.6.30	343(382)	19,201	8,505,371	15,369
96.8.3	331(389)	21,477	8,212,494	20,491

제도개선으로 유동성 증가 예상

현 증권거래소시장과의 역할 규명에 따라 장외시장의 발전 가능성 변화

- 이는 당초 계획했던 「장외등록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」 개정이 늦어져 대주주의 주식 분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

- (展望) 制度 改善, 場外 株價指數 開發, 去來所市場과의 역할 정립 등이 이루어지면 場外市場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
 - 앞으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실시에 힘입어 대주주의 주식 분산 및 유동성 증가가 예상됨
 - 증권업협회에서도 자본금 대비 10%의 주식 분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서 등록 폐지를 계획하고 있어 유통 물량의 확보가 기대되어짐
 - 지수 산정 방식과 전산 개발이 이루어져 내년부터 장외 주가지수 사용이 시작되면 보다 많은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임
 - 장외시장이 보다 더 활성화되려면 현 증권거래소 시장과의 역할 정립이 필요함
 - 즉, 장외시장을 거래소의 보완 및 중간 단계 시장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미국의 나스닥처럼 뉴욕증권거래소의 대체시장으로 발전시킬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
- 만약 장외시장을 거래소시장의 前단계 시장으로 국한시킨다면 코스닥 증권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의 획기적인 발전은 기대키 어려움
- 그러나 장외시장을 거래소시장과 동반 협력적인 대체시장으로 발전시키면 장외시장에 보다 많은 모험기업과 기술집약형 신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며, 또한 벤처캐피털의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한 유통시장으로서 장외시장이 자리매김할 것임
-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90년대 들어 나스닥은 「첨단 정보통신주들의 시장」으로 간주되어 기업들은 뉴욕증시보다 오히려 나스닥에 상장되어지기를 선호하고 있음 (김 찬 진)